“진실의 방으로”



(재)대구가톨릭청소년회 직영기관
대안교육센터 꿈못자리 센터장 ❙ 박동찬(미카엘)신부

저는 대안교육센터 꿈못자리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동찬(미카엘)신부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이곳은 학교부적응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교육기관입니다.

제가 근무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선배신부님이 저에게 “여기 센터에는 진실의 방[1]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우리 센터에 있습니까? 어딥니까?” 라고 묻자 선배신부님의 대답은 “아 몰랐어요? 소문이 났던데 신부님사무실 아닙니까!” 한참동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우리 센터에는 진실의 방은 없습니다.

왜 이런 소문이 돌았을까? 우리 센터에 오는 학생들에 대한 인식 때문이겠지요. 학교부적응이라고 하면 싸우고, 때리고, 훔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친구들 바로 문제아들로 인식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추측해 봅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신부님 많이 힘드시지요.”라는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센터의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폭력의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우울증 또는 불안증세를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도 받고 있고 약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친구들이 자존감,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많은 시간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의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보호나 관심을 받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센터의 교사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관심 받고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에는 심리적, 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법인으로 불우한 청소년을 위해 후원금을 기부한 분이 계시니 학생들을 추천해주면 좋겠다라는 국장 신부님의 연락이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우리 센터의 3명의 학생을 추천했고 감사하게도 3명 모두에게 소중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참고로 학생들 후원금은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데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성심껏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평소 표현을 하지 못하던 친구들이 후원금을 받고 감사의 말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감사의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함을 알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을 체험하게 해주신 후원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한해도 우리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허락된 이 시간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마지막으로 염치불구하고 후원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마동석 배우가 형사로 출현하는 영화에서 마동석 형사가 범죄자들을 취조하는 장소.